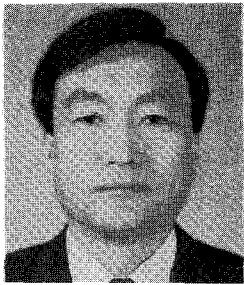


씨앗을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윤재국
(영농장 대표)

1. 욕심은 화를 부른다

“불황을 극복하라” “육계과잉 생산 해결방안” “축산물 안정 생산 시스템 절실” 이상은 최근 붓물 터지듯이 나오는 축산 전문잡지나 신문의 제목들이다.

또한 본인도 그와 비슷한 제하의 글을 청탁 받고 고심하고 있는 중이다.

왜, 한꺼번에 이러한 외침이 쏟아지는가? 육계불황의 골이 너무 깊고 상처가 클 뿐 아니라 육계업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일부 필자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육계농가의 입장을 생각해서 축산당국과 양계협회가 어떤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다는 말을 한 것을 본적도 있다. 사실 육계농가의 현실은 글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또 얼마 전에는 모 계열업체의 부도 소식으로 짓눌린 농가의 마음을 더욱 우울하게 만드는 일이 있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육계업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생각해본 질문일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인은 육계관련 업계 모두의 지나친 욕심이 화를 부른 것으로 우선 생각된다.

2001년도의 원종계 입식이 평소의 두배가 되었다는 것에서 불황이 예고되었을 뿐 아니라 시장을 장악하려는 업체들의 지나친 자신감과 욕심이 여실히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육계업계는 그 동안 닭의 특징과 같이 파헤치고 약

자를 쪼는 특성은 강하고, 상생의 정신은 보기 어려운 것이 부끄러운 현실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무모한 경쟁의 결과가 매우 아프게 우리 앞에 닥쳐 온 것이다.

2. 정확한 예측과 조절을 위한 시스템의 결여

현재 겪고 있는 장기 불황의 또 하나의 이유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사육 수수를 적절히 조절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사실 양계협회나 농경연의 관측센터 등에서 2001년 후반부터 계속 심각한 불황을 경고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고에 유의한 사람도 많지 않았고 대비하기 위한 유효한 기구나 시스템이 없어 예측과 조절사이에 연결고리가 없었던 것이 화근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물론 수급 조절을 위한 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최근 원종계 감축노력이 한계에 부딪쳐 있는 것을 볼 때 이름뿐인 민간 단체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원종계 입식과 종계 분양부터 체크하는, 빠르고 정확한 예측과 그것을 실제조절에 적용 할 수 있는 힘 있는 시스템을 모두가 원하는 것이다.

최근 정부 당국자에 의해 자주 언급되는 적정 원종계 9~10만, 종계 적정수수 400 여만

수 라는 얘기는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공감하는 부분이며 왜 진작 이런 노력을 하지 못했는가, 하는 아쉬움이 든다. 앞으로 예고되는 등록제가 시행될 경우 그 점에 대한 행정당국의 책임과 역할도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3. 위기를 기회로

나무가 다 타면 불도 꺼진다는 말과 같이 지나친 욕심과 경쟁의 상처 뒤에 치료와 회복을 위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은 하나의 희망이며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 한줄기 희미한 빛이 비치는 것과도 같다. 중복이후 닭 값이 회복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되는 듯 하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의 소지는 계속 남아있다. 그러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문제의 해답은 의외로 간단하며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앞서 언급 한 것처럼 이제부터라도 서로 대



립되고 지나치게 경쟁하였던 단체나 업체들이 서로 상생의 정신을 갖는 것이다. 모두가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원칙을 중시하며 약간이라도 상대를 생각하면서 자기이익도 추구하는 정도 경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말이 너무 원론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중환(重患)을 겪은 환자는 조그만 이야기에 도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지금 모두가 한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리고 모두가 원하는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행정 당국자의 몸을 아끼지 않는 노력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일이 시급한 또 다른 이유는 2003년 상반기 원종계 수입물량이 지난 6월에 72,000수가 들어와 지난 수년간의 기록과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이며 이 숫자는 지난해 하반기의 엄청난 물량에 이어 들여온 것이어서 지금의 어려움을 생각할 때 생각 있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아직도 힘 싸움과 눈치작전이 끝나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올 하반기 물량에 대한 조절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지금 거론되는 종계의 데이터 베이스 구축과 계획생산에 대한 의견들도 전향적으로 검토되어 속히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위기상황에서 나온 이러한 여러 좋은 제안들이 결실을 맺어 육계업이 안정되어 현재의 위기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4. 끝으로

지금 많은 수의 농가들이 다양한 형태의 계약사육에 참여하고 있다. 양계산업의 발전과

안정화 방안을 생각하면서 계약농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계약농가는 근래 불황의 여파를 피해간 듯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일부 부도업체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은 농가도 있지만 대부분의 계약농가들이 제때에 입추를 못해 오래 동안 계사를 비워 두거나 복 시즌에 출하한 농가들은 재 입추의 약속도 받지 못한 채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거기에다 계약조건도 일방적으로 수시로 칼질을 해 농가들은 정책자금 상황은 고사하고 생활하기도 어려운 정도에 와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물량 조절이 이루어 졌을 때 가격은 안정이 되더라도 계약농가의 입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상당수의 농가들이 계열주체에 끌려 다니다가 일부는 폐업 또는 전업하는 아픔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닭만 키워온 순박한 농민들이 과연 다른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심히 염려되는 부분이다.

양계협회에서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정책 당국자들과 함께 폐업 또는 전업하는 농가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는 근본 해결책 중 하나로 생각된다.

그 동안 불황의 여파로 아픔을 겪으면서도 호못한 일들이 있어서 약간의 위로가 된 일들이 있었는데 바로 양계협회에서 함께 노인들에게 닭죽을 대접한 일이나 사랑의 닭고기 보내기 운동을 통해 상호 협력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되어 자조금 사업도 신속히 추진하고 수입 닭고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세워 우리의 양계산업이 안정되고 발전되기를 절박한 심정으로 기대해 본다. **양계**